

‘신과 함께’ 개봉 7일만에 500만 관객 돌파 올 연말 ‘천만영화’ 될까?



하루 120만명 이상 관람

영화 ‘1987’과 함께 흥행 쌍끌이

내년 태극·베트남·호주 등 개봉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500만 고지를 밟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과 함께’는 개봉 7일째인 26일 오후 누적 관객 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신과 함께’는 특히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하루 120만명 이상을 불러모으며 성탄절 연휴 극장가를 휩쓸었다.

‘신과 함께’의 흥행 돌풍에 힘입어 극장가도 연말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루 극장 관객 수는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2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4일에는 206만7천829명이 들어 역대 하루 최대 관객을 기록했다.

하루 200만명 이상이 극장을 찾은 것은 ‘국제시장’ ‘기술자들’ 등이 상영된 2014년 12월 25일(205만8천342명), ‘히말라야’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등이 맞붙은 2015년 12월 25일(202만1천140명)에 이어 이번 이 세 번째다.



영화 ‘신과 함께’ 출연진들이 500만 관객 돌파 기념 사진 촬영하고 있다

극장 최대 최성수기인 지난 7~8월에도 하루 최대 관객 수가 170만명대였고, 지난해 성탄절 때는 160만 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영화 흥행으로 옮겨올 시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7일에는 6월 흥행을 다룬 영화 ‘1987’이 가세해 ‘신과 함께’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각 현재 실시간 예매율을 보면 ‘신과 합

께’(48.7%)와 ‘1987’(26.4%)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 중이다.

황재현 CGV 팀장은 “지금 추세로 볼 때 ‘신과 함께’는 1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987’과 쌍끌이 흥행이 이어지면서 극장 전체 관객 수도 올 연말까지 지난해의 2억1천700만명을 100만 명 가량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과 함께’의 흥행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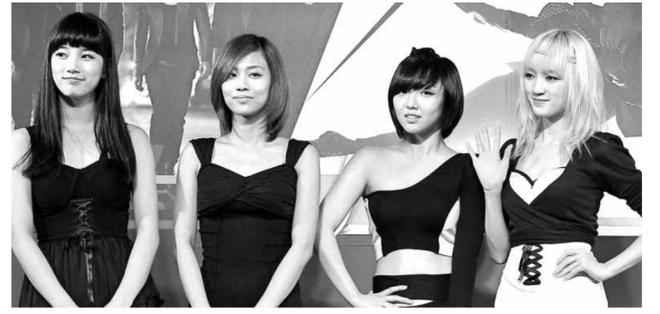
지난 22일 대만 전국 80개 스크린에서 선보인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22~24일) 박스오피스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했으나, 입소문을 타고 23일 2위, 24일 1위에 오르며 역주행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스타워즈 : 라스트 제다이’, ‘위대한 소년’ 등 경쟁한 할리우드 영화를 제친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김용화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과 함께’는 이달 28일 태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내년 초까지 차례로 개봉한다.

연말뉴스



‘미쓰에이’ 7년만에 팀 해체

배우·솔로가수로 재갈길

4인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사진〉가 해체됐다. 27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원년 멤버 일부가 소속사를 떠나면서 결성 7년 만에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미쓰에이는 2010년 7월 한국인 멤버 수지·민과 중국인 멤버 지아·페이 등 4인조로 결성돼 ‘배드 걸 굿 걸’(Bad Girl Good Girl)로 데뷔,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가운데 페이는 지난해 5월, 수지는 올해 8월 JYP와 재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5월 전속 계약이 만료된 지아, 올해 4월 계약이 끝난 민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쓰에이의 팀 활동은 2015년 3월 미니앨범 ‘컬러스’(Colors) 이후 2년 8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소속사에 남은 두 멤버 중 수지는 배우로 입지를 탄탄하게 굳혔고 페이는 지난해 솔로 앨범을 내놨다.

연말뉴스

“4배 선명한 초고화질로 시청하세요”

kbc 광주방송, UHD 서비스

(초고화질)

전용 안테나·셋톱박스 설치해야

kbc 광주방송이 오는 29일부터 초고화질 UHD 분방송을 시작한다.

지난 1일부터 UHD 실험방송을 해 온 kbc 광주방송은 오는 29일 오전 9시55분부터 양방향 초고화질 UHD 분방송 송출에 나선다.

UHD는 Ultra High Definition의 약자로 해상도가 높은 초고화질 영상기술식의 하나로 광주지역 시청자들은 기존의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 음향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반드시 UHF 안테나(470~806MHz) 설치해야 한다.

2016년 이전에 구입한 UHD TV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하면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는 ‘티비바(TI-VIVA)’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된 TV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티비바는 지상파 3사 공동으로 개발한 UHD 양방향 서비스로 50 여개의 실시간 채널, 드라마, 다큐,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이 가능하며, UHD VOD도 서비스도 이뤄진다.

UHD 방송은 지난 5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광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광역도시권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에서 이뤄진 뒤, 오는 2021년 도 단위 송출을 거쳐 2027년 현재의 DTV 방송이 완전 종료되고 UHD로 전환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미화·박혜진 아나운서 등 ‘블랙리스트’ 한자리에 모인다

‘MBC스페셜’ 오늘 방영

세월호 참사 가족들 만남

김병준 전 총리 후보자 출연

MBC TV는 2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할 ‘MBC 스페셜’에 방송인 김미화 등 한동안 MBC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치지 못했던 인물들이 출연한다고

27일 소개했다.

제작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끝낸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해 김미화와 주진우 기자, 진중권 교수, 이외수 작가, 박혜진 아나운서 등 ‘블랙리스트’로 불렸던 인물이 모인다”고 설명했다.

김미화는 6년 8개월, 주진우 기자는 8년 2개월, 진중권 교수는 5년 10개월, 이외수 작가는 4년 만의 출연이라고 MBC는 전했다.

박혜진 아나운서 역시 6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로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최근 선임된 최승호 새 사장은 ‘MBC스페셜’ 녹화 전 스튜디오를 찾아 이들에게 앞으로 MBC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장애인 학생과 희생자 고(故) 김동혁 군 가족 간의 만남이 담긴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던 김병준 전 총리 후보자 등도 출연해 당시 상황을 전한다.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KBS대기획 요리 인력 도시의 맛 (재)	50 앙코르 특선다큐멘터리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0 내 남자의 비밀(재)	4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12 MBC 뉴스 20 앙코르 특선 다큐멘터리 우리 엄마 순애씨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2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감성투 고맙습니다 스페셜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20 똑? 똑! 키즈스쿨 50 볼글자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0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20 TV 유치원 50 누가 누가 잘하나	20 통일전망대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골길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태닝메카드 R 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뉴스 15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헬스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브24 55 육기사(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특별기획 진주대첩			
10	30 KBS 뉴스라인	00 육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0 청소년드라마 언단테 55 성탄특집 UHD 어린 헤브론	1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MBC UHD 다큐 위대한 한끼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신나는 만화 세상)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뽀로로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노(재) 08:45 수확이 아홉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30 롤링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태리식 조개스튜, 미트볼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정수의 비밀 (근육은 나이가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벼랑 끝에 서다, 화산점프)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복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홉(재) 16:45 뽀롱뽀롱 뽀로로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기상천외의 마찰력 올림픽)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새해를 기다리며)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28일 (음 11월 11일 己丑)

<p>子</p> <p>48년생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60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지원을 알아야 한다. 72년생 급작스러운 단절과 변화가 보인다. 84년생 막연한 추정은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행운의 숫자 : 96, 75</p>	<p>午</p> <p>42년생 상호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54년생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씩이 트는 국면이다. 66년생 유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78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다. 90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87</p>
<p>丑</p> <p>49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61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73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제지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64, 58</p>	<p>未</p> <p>43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5년생 체계와 질서에 따라야 만이 손조롭다. 67년생 먼저 행해야 할 일 있다. 79년생 과신한다면 잃는 바가 많을 것이다. 91년생 표면은 볼 품 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49</p>
<p>寅</p> <p>50년생 차후의 문제는 차치하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62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86년생 기존의 대응 방법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4, 26</p>	<p>申</p> <p>44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바가 뜻밖의 판세로 비화될 수 있다. 56년생 결모양에 대한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68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80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행운의 숫자 : 37, 74</p>
<p>卯</p> <p>51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인데 틀림없다. 63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75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상대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87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74, 04</p>	<p>酉</p> <p>45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미루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69년생 밤심하다가는 예정되었던 궤도를 이탈하리라. 81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9</p>
<p>辰</p> <p>52년생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64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동떨어진 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 76년생 남치는 것 보다는 부족함 듯 함이 결과적으로 낫겠다. 88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하는 계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71, 68</p>	<p>戌</p> <p>46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 거두리라. 58년생 주관에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70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82년생 판세를 안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3</p>
<p>巳</p> <p>53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65년생 무조건적인 신뢰와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77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대응하게 된다. 89년생 예상치 못하게 바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78</p>	<p>亥</p> <p>47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59년생 흠속에서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71년생 흥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움 얻어 결실 수 있겠다. 83년생 조금만 더 진행되고 있으면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2, 7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